

응답자특성과 면접상황이 응답스타일(response style)에 미치는 효과

김석호* 신인철**

I. 들어가는 글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의 성, 연령과 같은 행태학적 특성 이외에 사고, 감정, 태도 등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사회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척도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에는 응답자들이 질문지에 응답할 때 응답문항의 실질적인 의미에 기반하여 대답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응답은 비맥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Cronbach, 1946; Lentz, 1938).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과학자들은 조사도구의 측정오류의 다양한 잠재원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 항목에 응답자들이 대답을 할 때 사용되는 스타일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남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조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척도의 양끝의 범주를 선택하거나 긍정적으로만 응답하는 경우라 하겠다. 이후 50년 이상 동안 이러한 응답의 차이와 원인,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유형(response pattern)의 본질과 관련되어서는 학자들간에 일정한 합의를 이룬 상태는 아니다. 예를 들어, Hofstede(1980)와 Van de Vijver 및 Leung(1997)은 응답유형의 차이가 방법편의(method bias)의 또 다른 형태로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편의 또는 오차분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산을 제거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Smith(2004)는 응답유형이 그 자체로는 편 의가 아니라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의사소통 양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문화와 관련된 차이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견해에 대해 Fischer(2004)는 양자가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 또는 문화간 비교연구에서 이러한 문화적 경향이 응답자의 응답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문화적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편 의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 수준의 경우에도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해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따른 응답유형의 차이에 따라 응답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는 편 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스타일이라고 불리는 편 의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응답스타일에 따른 편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과 그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응답편 의(response bias)는 특정한 문항의 내용보다는 일부 다른 원인에 의해 전반적인 설문지 문항들에 걸쳐 응답하는 체계적인 경향을 말하는데(Paulhus, 1991), 응답스타일(response styles), 응답 세트(response sets) 등으로도 불린다.¹⁾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러한 응답편 의는 1950년대 이후로 측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Messick, 1991).

그 이전에는 응답자가 제공하는 대답이 그들의 지식이나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1940년대 응답편 의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Cronbach(1946, 1950)는 이와 관련된 두 개의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특히 1950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내용과 무관하게 응답하는 경향을 나타내고자 응답세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세트이라는 용어는 시간압박이나 특수한 문항서식과 같이 응답자에게 요구되는 일시적 반응이나 처지를 말하며, 다른 형태의 문항서식이 제공되거나 다른 시간에 연구될 경우 편 의가 발생하지 않는 측정이

1) 응답편 의와 관련하여 국내의 연구들이 사실 전무한 상태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response style과 response set과 관련된 적절한 번역이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심리학 방법론 교재에서는 ‘반응 양식’과 ‘반응집단’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특히 반응집단이라는 용어는 영어를 직역한 것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번역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심리학에서 자극의 결과로서 response를 ‘반응’으로 해석한 것을 ‘응답’으로 바꾸고, 나머지 용어는 영어식 한글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social desirability bias)을 들 수 있다.²⁾

그러나 일부 응답세트는 응답자의 전반적인 응답에 걸쳐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Cronbach, 1946; Messick, 1968), 응답자의 성격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처럼 응답자들이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일정한 편의를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Jackson과 Messick(1958)은 응답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제한하였다. 이처럼 응답스타일은 내용과 관계없이 설문문항에 체계적으로 응답하는 응답자의 경향을 말하며(Baumgartner and Steenkamp, 2001), 대표적으로 내용과 관계없이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소위, yea-saying)을 말하는 묵인응답스타일(acquiescence response styles, 이하 ARS)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Smith와 Fischer(2008)은 묵인경향이 강한 해당문항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Podsakoff 등(2003)은 ARS를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본질과 관련된 방법편의(method bias)의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두개이상 변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 인위적 분산(artificial variance)을 발생시키는 잠재적 원인으로 본다.

이 외에도 내용과 관계없이 가장 극단의 응답범주를 지지하는 경향인 극단응답스타일(extreme response styles; 이하 ERS)과 중간척도범주를 선택하는 중간응답스타일(middle response styles) 등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용어들을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ARS와 ER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응답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응답스타일의 문제는 방법편의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비교문화 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³⁾ Van de Vijver와 Leung(1997)은 편의를 구성편의(construct bias), 방법편의, 문항편의(item bias)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편의는 편의가 없는 세 가지의 동치(equivalence)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즉, 반드시 동일한 양적 척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간에 동일한 특성을 측정하는 구조적 또는 기능적 동치, 척도의 측정단위가 모든 문화에서 동일한 측정단위의 동치, 그리고 주어진 값의 점수들이 모든 측면에서 문화들간에 같은 의미를 가져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척도 동치 또는 전체 점수 비교가능성이다.

특히, 측정단위의 동치문제는 방법편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편의는 대부분의 문항들이 연구되는 구성되는 독립적인 요인에 의해 비슷하게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2)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요망’, 또는 ‘사회적 소망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번역하였다.

3) 이에 Smith(2004)는 응답편의를 비교 문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떤 특수한 문화적 맥락 내에서 지배적인 개인들의 의사소통양식과 집단들간의 관계가 국가적 수준에서 반영된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일부 문화에서 묵인의 경향이 일반적일 때 모든 문항의 응답들이 이것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방법편의는 동일한 도구에서 일부 다른 문항이 포함됨으로 인해 문화집단들간의 응답 유형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항편의와는 다르다. 문항편의의 경우, 문항반응이론에 기반한 분석 등을 통해 편이문항의 제거를 통해 자료내에서 보정할 수 있지만 방법편의는 제거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방법편의를 반영하는 평균점수의 집단간 차이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응답스타일의 문제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묵인의 정도에 있어 문화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자. Watkins와 Cheung(1995)은 호주와 중국, 네팔, 필리핀의 아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호주의 아동들이 다른 국가의 아동보다 묵인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Grimm과 Church(1999) 역시 미국학생보다는 필리핀 학생이 묵인정도가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Steenkamp와 Baumgartner(1998)은 그리스, 영국, 벨기에 응답자들을 분석할 결과, 그리스 응답자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묵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의 연구(Baumgartner and Steenkamp, 2001)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Hofstede(2001)에 따르면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순응이 강조되고 순종이 일반적인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강한데, 권력거리가 강한 사회에서는 묵인적 행위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에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권력거리척도를 이용하여 국가별 묵인정도와의 강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Smith, 2004; van Hermert 등, 2002).

이와 마찬가지로 ERS에서도 국가간 차이를 보여주는 적지 않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일본 및 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en, Lee와 Stevenson(1995)의 연구에서 미국학생들은 일본이나 대만 학생들보다 ERS가 높고 중간점수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Green(1991)의 연구에서도 한국학생보다는 미국학생이 ERS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ERS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가 상호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논의들이 힘을 얻고 있다. 즉,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ERS 선택 경향이 높은 반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ERS도 이러한 문화적 성향과 연계시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학생과 미국학생을 비교한 Stening과 Everett(198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성향과 ERS같은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처럼 응답스타일과 문화적 차원간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문화적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문화간 비교를 위해서는 구성편의와 문항편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동질적이어야 하며, 특정 문항내용에 따라 응답성향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설

문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문화적 특성에 따른 ERS나 ARS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비록 서구의 경우이지만,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5~30%가 ESR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ustin, Deary and Egan, 2006; Eid & Rauber, 2000). 만약 앞서 논의들을 따른다면, 왜 이러한 응답스타일이 차이를 보이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허위상관의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조사에서 응답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앞서 응답스타일은 내용에 상관없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발생하는 응답편의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독특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안정된 성격특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응답스타일이라는 것은 각 개인들마다 다른 안정적인 성격특성의 행동적 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Naemi, Beal and Payne, 2009).

먼저, ERS와 관련된 성격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인식론적 논의와 관련된 성격특성 중 ERS에 가장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이 모호성의 인내심 부족(intolerance of ambiguity)을 들 수 있다.⁴⁾ 즉, 모호성에 대해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모호한 반응을 피하고 확실히 명확한 선택에 귀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ERS을 나타낼 경향이 높을 것이다. 이처럼 ERS와 모호성의 인내심부족 성격특성이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대표적으로 Baumgartner and Steenkamp, 2001; Eid and Rauder, 2000). 또 다른 성격특성으로서 결단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단력이 강할수록 명확한 ERS를 나타낼 경향이 높을 수 있다. 비록 비교문화적 연구의 결과로서 생태학적 오류의 가능성은 있지만, Johnson 등(2005)은 자기주장과 결단력을 강조하는 남성적 문화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한 한 가장 강한 범주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남성적 문화와 ERS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ERS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Eid 등(2000)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Berg와 Collier(1953), 그리고 Lewis와 Taylor(1955)은 불안감과 ERS같은 연관성을 발견하였는데 반해, Austin 등(2006), 그리고 Meiser와 Machunsky(2008)의 연구에서는 ERS가 신경증, 즉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개방성과 친화성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Gerber-Braun(2010)의 연구에서는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ERS 역시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안정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ARS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인의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서 이를 검

4) 모호성의 인내심 부족이란 Budner(1962)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충분한 단서부족으로 인해 개인에 의해 정확하게 구조화되고 범주화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을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Grimm과 Church(1999)는 ARS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개인의 친화성을 지적하면서 미국학생과 필리핀 학생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비록 동 연구에서 이들 양자 간의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반대의 경향(친화성이 높을수록 ARS가 감소)을 나타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Meisenberg와 Williams(2008)는 79개국에 대한 WVS(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ARS는 낮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한 복종과 순응, 그리고 자기주장이 적은 경우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응답스타일 중 ERS와 ARS가 어떠한 응답자의 성격특성과 면접상황이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수행된 한국종합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 이하 KGSS)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KGSS는 한국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기초 통계 원자료의 생산 및 확산을 위해 시행되는 연차적 대단위 전국표본조사사업으로서,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해서 다단계지역집락표집방법에 의해 추출되며, 일대일 심층 면접방식에 의한 현지조사를 통해 수행된다. 2009년 조사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반복핵심조사 이외에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지정모듈인 사회불평등, 그리고 특별주제로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과 「한국사회의 정신 건강과 자살」에 대한 주제모듈에 대해 1,599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⁵⁾

비록 응답스타일이 내용과 관계없이 설문문항에 체계적으로 응답하는 응답자의 경향을 나타내기에는 하지만, 일부 편향된 모듈선택에 따른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록 2009 KGSS가 사회불평등과 관련된 ISSP와 특별주제 모듈이 함께 조사됨으로서, 관련 문항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항들도 일부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2009 KGSS에서는 응답자의 5가지 성격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5) 2009년도 실시된 KGSS의 조사방법과 조사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김상욱 외(2009)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를 참고하길 바란다.

척도가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변수 변환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된 10명을 제외하고 1,58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ERS 및 ARS

먼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이자 종속변수인 ERS와 ARS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측정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주제에 편중된 문항선택을 최대한 배제하고, 같은 척도로 묻은 문항들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불평등과 관련해서는 4개의 문항(고위직의 부패정도 1문항과 교육기회의 형평성 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와 동일 직장에서 각기 다른 조건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 등 총12개 문항이 이용되었다. 다음으로 자살의 동의정도에 대해 14가지 문항으로 묻은 척도를 고려하였다. 이처럼 특정 주제에 편중되는 경향이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09 KGSS에서 일부 26개 문항만 선택함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에 있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동일한 척도로 측정이 되었느냐 이다. 즉, 위에서 선택된 문항들은 ‘매우 동의’부터 ‘매우 반대’까지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 외에도 4점 척도, 7점 척도 등으로 구성된 문항들이 있지만, 문항간 척도의 비교가능성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5점 척도를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택한 문항들을 이용하여 ERS와 ARS 지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ERS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문항들에서 양 극단 범주(1 또는 5)에 응답한 개수를 이용하거나(Johnson 등, 2005), 이것을 문항수로 나누는 방법(Bachman and O'Malley, 1984; Herk, Poortinga, Verhallen, 2004)이 많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ERS 지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ARS 지표 역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지만, 순-묵인지수(net acquiescence index)와 묵인균형지수(acquiescence balance index)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양자는 산출방식이 매우 유사하며, 단지 차이는 ERS 지수 산출과 마찬가지로 문항의 수를 고려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5점 리커트척도인 전체 문항들에서 ‘매우 동의’와 ‘약간 동의’에 응답한 개수에서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에 응답한 개수를 뺀 값을 말하며(Greenleaf, 1992; Hui and Triandis, 1985), 후자는 이 값을 문항의 수로 나눈 값이다(Harzing, 2006; Herk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반대보다 동의하는 경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성격특성

ERS와 ARS의 주된 설명변인으로 고려하고 성격특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측정하였다. 성격특성은 5요인 성격모형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동 모형은 특성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람들의 성격이 공통적으로 5요인(Big-Fiv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5개 요인은 개인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까지 폭넓게 설명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5요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좋아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외향성(extraversion),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친화성(agreeableness),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의미하는 성실성(conscientiousness)과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자신이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그리고 지적 자극, 변화, 그리고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와 관련된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ess to experience)을 의미한다. 이처럼 5요인에 대한 명칭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일경, 이상민 외, 2010).

이러한 5요인 성격모형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측정도구는 Costa와 McCrae(1992)의 NEO-PI-R(NEO Personality Inventory, Revised)인데, 5가지 차원의 성격특성별 6개의 하위요인에 대해 240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하지만 너무 길고 통합적 해석의 곤란 등의 이유로 이를 변형한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Gosling Rentfrow 및 Swann(2003)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동 도구는 각 5개의 성격차원을 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각 성격차원들은 Gosling 등(2003)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였다⁶⁾.

먼저, 외향성은 ①외향적이며 열정적인지(extraverted, enthusiastic)와 ②내성적이며, 조용한지(reserved, quiet)로 측정된다. 친화성은 ③비판적이며, 논쟁을 좋아하는지(critical, quarrelsome)와 ④동정심이 많고 다정다감한지(sympathetic, warm)로, 성실성은 ⑤신뢰할 수 있고, 자기 절제를 잘하는지(dependable, self-disciplined)와 ⑥정리정돈을 잘 못하거나 덤벙대는지(disorganized, careless)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정서적 안정성은 ⑦근심 걱정이 많고 쉽게 흥분하는지(anxious, easily upset) 그리고 ⑧차분하며 감정의 기복이 적은지(calm, emotionally

6) Gosling 등(2003)은 부록을 통해 측정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성격특성들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동 검사도구의 특징, 타당도 및 신뢰도 등 자세한 논의는 Gosling 등(2003) 참고

stable)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①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복잡다단한지(open to new experiences, complex)와 ②변화를 싫어하고 창의적이지 못한지(conventional, uncreative)를 통해 확인한다. 각 성격차원들을 조작화함에 있어 응답의 방향성이 다른 문항들(b, c, f, g) 그리고, j)은 역부호화하고, 이를 각 차원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3) 면접상황 및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응답스타일은 조사내용에 상관없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발생하는 응답편의로서, 각 개인들마다 다른 안정적인 성격특성의 행동적 발현으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 포함된 면접상황이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설명변인이라기 보다는 통제변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는 달리 면접상황이 응답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의들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는 판단컨대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첫 번째는 면접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회조사 자료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는 응답스타일 자체가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면접상황이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 수준에서나마 이들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면접상황과 관련해서는 설문지 기입방식의 차이를 구분하였다. KGSS은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인면접방식으로 진행되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는 있으나, 부득이하게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응답자로 하여금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도 일부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조사원이 설문지 전체를 기입하였는지(0값 부여), 그렇지 않고 응답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문항을 기입하였는지(1값 부여)로 나누어 분석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면접하는 동안 다른 사람(6세 미만 어린이, 6세 이상 어린이 또는 청소년, 배우자, 배우자 외 성인)이 있었는지도 고려하였다. 또한 면접하는 동안 응답자의 태도는 협조적이었는지(매우 협조적 또는 약간 협조적인 경우 0 값 부여), 아니면 비협조적이었는지(별로 비협조적 또는 전혀 비협조적인 경우 1 값 부여)를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가 질문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와 응답자 접촉의 어려움 정도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 면접원의 성별효과도 고려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면접상황에 비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응답스타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되고 있다. Austin 등(2006)에 따르면 ERS의 경우 연령의 효과는 U자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ERS를 응답할 경향

이 높은 데 반해 청장년층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ERS 응답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만연령을 연속형변수로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연령효과와는 달리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의 효과와 관련되서는 일치되는 결론을 얻지는 못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Austin 등(2006)과 Eid와 Rauber(2000)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ERS를 응답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Greenleaf(1992)과 Naemi 등(2009)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남성=1)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하였으며, 이 외에도 혼인상태(유배우자=1, 무배우자=0), 응답자의 거주지역특성((큰도시=1, 소도시이하=0)도 함께 고려해보았다. 이에 반해 교육수준과 응답스타일간에는 일관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ERS를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Greenleaf, 1992; Marin 등, 1992), 최근의 논의에서도 이것이 재확인된 바 있다(Eid and Rauber, 2000). ARS와 관련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Ross, Steward and Sinacore, 1995).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정규교육기관 수학년수를 고려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변수들의 특성과 기술통계량값들은 아래의 <표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1> 변수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구분	평균	(s.e)	범위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ERS(Extreme Response Styles) ¹⁾	0.310	(0.208)	0	0.96
ARS(Acquiescence Response Styles) ²⁾	0.336	(0.202)	-0.42	0.96
<설명변수>				
성격특성				
외향성(extraversion) ³⁾	4.242	(1.346)	1	7
친화성(agreeableness) ⁴⁾	4.757	(1.043)	1.5	7
성실성(conscientiousness) ⁵⁾	4.697	(1.174)	1	7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⁶⁾	4.111	(1.228)	1	7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⁷⁾	4.289	(1.230)	1	7
<통제변수>				
면접상황				
응답자 기입여부 ⁸⁾	0.197	(0.398)	0	1
면접시 타인동석 여부 ⁹⁾	0.477	(0.500)	0	1
면접시의 태도 ¹⁰⁾	0.095	(0.293)	0	1
질문에 대한 이해도 ¹¹⁾	0.604	(0.489)	0	1
응답자 접촉의 어려움 ¹²⁾	0.167	(0.373)	0	1
면접원의 성별 ¹³⁾	0.361	(0.481)	0	1
응답자특성				
성별 ¹⁴⁾	0.483	(0.500)	0	1
연령	43.438	(15.203)	18	94
혼인상태 ¹⁵⁾	0.671	(0.470)	0	1
교육수준	12.425	(3.989)	0	24
거주지역 ¹⁶⁾	0.576	(0.494)	0	1
사례수	1,589			

- 주: 1) 5점 척도 중 1 또는 5 범주에 응답한 총 사례를 전체 문항수로 나눈 값
 2) 5점 척도 중 긍정적(1 또는 2)으로 응답한 총 사례에서 부정적(4 또는 5)으로 응답한 총 사례를 빼고 전체 문항수로 나눈 값
 3)~7) 성격특성 측정도구에서 각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2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 값
 8) 일부/전체기입시=1, 면접원 기입시=0 ; 9) 면접시 타인동석=1, 응답자 단독=0
 10) 별로 비협조적/매우 비협조적=1, 다소 협조적/매우 협조적=0
 11) 질문 이해정도가 매우 높음=1, 기타=0; 12) 응답자 접촉이 어려운 경우=1, 기타=0 ; 13) 남성=1, 여성=0
 14) 기혼/동거=1, 이혼/사별/별거/미혼=0; 15) 거주지역; 16) 큰 도시/큰도시 주변=1, 기타=0

IV. 연구결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면접 당시의 상황 그리고 성격특성이 응답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봤는데, 우선 양 극단에 응답하는 경향이 누구에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ERS와 5가지 성격특성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5점 척도에서 1 또는 5에 응답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외향적이며, 친화성이 높고, 성실성이 강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서적 안정성의 경우에는 ERS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ERS와 5가지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1) ERS	1.000					
(2) 외향성	0.079**	1.000				
(3) 친화성	0.175***	-0.096***	1.000			
(4) 성실성	0.093***	0.015	0.140***	1.000		
(5) 정서적 안정성	0.042	-0.162***	0.222***	0.289***	1.000	
(6) 경험에 대한 개방성	0.078**	0.263***	-0.096***	0.066**	-0.081**	1.000

*p<0.05, **p<0.01, ***p<0.001

위의 상관분석 결과를 다른 성격적 특성이나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의 결과이므로, 이를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응답자의 성격특성만을 고려한 [모형1]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던 상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안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의 성격특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2]는 면접원이 응답자와 면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를 살펴본 결과인데, 응답 당시의 어떠한 상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가 설문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면접원기입방식에 따랐는지, 그리고 면접 당시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외 다른 성인이 동반했더라도 응답자 본인만 있는 상태에서 면접했을 때와 ERS 발생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가 설문 전반에 걸쳐 이해도 높고 낮거나 면접원을 위해 응답자와 접촉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간에 이것들 역시도 ERS와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면접당시의 상황이 ERS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성격특성이 갖는 효과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3〉 ERS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s.e.)			b (s.e.)			b (s.e.)		
<성격특성>									
외향성	0.0119	(0.004)	**	0.0118	(0.004)	**	0.0121	(0.004)	**
친화성	0.0358	(0.005)	***	0.0344	(0.005)	***	0.0319	(0.005)	***
성실성	0.0109	(0.005)	**	0.0111	(0.005)	*	0.0093	(0.005)	*
정서적 안정성	0.0005	(0.004)		0.0003	(0.004)		-0.0011	(0.005)	
개방성	0.0120	(0.004)	**	0.0128	(0.004)	**	0.0152	(0.004)	***
<면접상황>									
응답자 기업	-			-0.0185	(0.013)		-0.0104	(0.013)	
타인동석	-			0.0099	(0.010)		0.0076	(0.011)	
면접태도	-			-0.0135	(0.018)		-0.0152	(0.018)	
질문이해도	-			-0.0114	(0.011)		0.0050	(0.012)	
응답자접촉곤란	-			-0.0165	(0.014)		-0.0115	(0.014)	
면접원의 성별	-			-0.0081	(0.011)		-0.0143	(0.011)	
<응답자특성>									
성별	-			-			0.0194	(0.011)	†
연령	-			-			-0.0007	(0.002)	
혼인상태	-			-			0.0079	(0.014)	
교육수준	-			-			-0.0032	(0.002)	†
거주지역	-			-			-0.0289	(0.011)	**
상수	-0.0157	(0.039)		0.0009	(0.041)		0.0451	(0.061)	
R ² (adj-R ²)	0.048(0.046)			0.053(0.047)			0.070(0.06)		
F-값	16.24***			7.00***			7.00***		
표본수	1,589			1,589			1,589		

*p<0.05, **p<0.01, ***p<0.001

[모형 III]에서는 면접상황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함께 통제된 상태에서의 성격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면접상황을 통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격특성이 ERS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면접상황과는 달리,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는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미성이 다소 약하지만, 남성일 경우

또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ERS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ustin 등(2006), 그리고 Meiser와 Machunsky(2008)가 ERS와 신경증, 즉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개방성과 친화성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지 못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오히려 Gerber-Braun(2010)가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ERS 역시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정서적 안정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결국, ERS는 면접상황이나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특성에 따라 그 발생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설문과정에서 누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강한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표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앞의 분석에서와 같이 ARS와 성격특성간의 상관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응답자의 다른 성격특성들은 ARS와 통계적인 연관성을 갖지는 않았지만,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에는 ARS를 응답하는 경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ARS와 5가지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1) ARS	1.000					
(2) 외향성	-0.031	1.000				
(3) 친화성	0.020	-0.096***	1.000			
(4) 성실성	-0.005	0.015	0.140***	1.000		
(5) 정서적 안정성	-0.036	-0.162***	0.222***	0.289***	1.000	
(6) 경험에 대한 개방성	-0.056*	0.263***	-0.096***	0.066**	-0.081**	1.000

*p<0.05, **p<0.01, ***p<0.001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허위상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ERS와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5>와 같이 3가지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모형IV]에 제시된 바와 같이 ARS에 대한 성격특성의 효과만을 분석해본 결과, 정서적 안정성과 개방성이 높을수록 ARS를 응답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성격특성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V]는 면접 당시의 상황을 통제할 경우의 모형으로, 이 경우 성격특성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모형VI]과 같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경우에는 개방성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정서적 안정성을 3모

형에 걸쳐 전반적으로 ARS와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RS와는 달리 면접상황에 따라 ARS 발생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통계적 유의미성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지만, 응답자가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면접을 위해 응답자와 접촉이 곤란했던 경우 ARS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위의 분석결과와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 등을 고려해볼 때, 응답자가 설문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향은 성격특성과는 큰 관계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5〉 ARS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형Ⅳ		모형Ⅴ		모형Ⅵ	
	b	(s.e.)	b	(s.e.)	b	(s.e.)
<성격특성>						
외향성	-0.0035	(0.004)	-0.0039	(0.004)	-0.0031	(0.004)
친화성	0.0045	(0.005)	0.0051	(0.005)	0.0028	(0.005)
성실성	0.0018	(0.005)	0.0019	(0.005)	-0.0007	(0.005)
정서적 안정성	-0.0086	(0.004) *	-0.0093	(0.004) *	-0.0112	(0.004) **
개방성	-0.0086	(0.004) *	-0.0075	(0.004) †	-0.0055	(0.004)
<면접상황>						
응답자 기입	-		-0.0277	(0.013) *	-0.0195	(0.013)
타인동석	-		0.0015	(0.010)	0.0036	(0.01)
면접태도	-		0.0189	(0.018)	0.0163	(0.018)
질문이해도	-		0.0048	(0.011)	0.0202	(0.011) †
응답자접촉곤란	-		0.0258	(0.014) †	0.0296	(0.014) *
면접원의 성별	-		-0.0004	(0.011)	-0.0050	(0.011)
<응답자특성>						
성별	-		-		0.0336	(0.010) ***
연령	-		-		0.0049	(0.002) *
혼인상태	-		-		-0.0167	(0.014) †
교육수준	-		-		-0.0025	(0.002)
거주지역	-		-		-0.0270	(0.011) †
상수	0.3935	(0.039) ***	0.3856	(0.040)	0.3051	(0.060)
R ² (adj-R ²)	0.006(0.003)		0.011(0.004)		0.036(0.026)	
F-값	1.90		1.66		3.45***	
표본수	1,589		1,589		1,589	

*p<0.05, **p<0.01, ***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사회조사 과정에서 응답자가 보여주는 응답스타일 특히 질문 내용에 관계없이 척도의 양 극단에 응답하는 경향이 많거나,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ERS의 발생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가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ERS 역시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정서적 안정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반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면접 당시의 상황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RS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성격 특성보다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면접 당시의 상황, 또는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록 양자 모두 방법편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지만 각기 다른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사회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응답스타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히, ERS와 같이 응답자의 성격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반세기 이상에 걸쳐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방법편의(method bias)가 측정오류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고 이것이 얻어진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저해시킨다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방법편의의 주된 원인으로 ERS와 ARS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조사에서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응답스타일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의 대안을 검토해 보아야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측정도구를 개발할 때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응답스타일로 인한 편의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평가 이후에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먼저, 응답스타일로 인한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가장 쉽고 소극적인 방법은 응답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정직하게’하게 응답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응답결과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지조사과정에서 이것이 이행될 수 있을지(면접원 또는 응답자가 읽는 것), 그리고 과연 응답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특히 ARS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동일 수의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ARS이기 때문에 문항의 방향성과는 관계없이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며, 이러한 딜레마가 모호한 문항형식(ambiguous item format)으로도 알려져 있다(Segura and González-Romá, 2003). 이와 관련하여 Barnette(2000)은 부정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을 포함시켰을 때 척도의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요인분석에서는 인위

적 요인을 생성시키는가하면, 응답자에게 반대의 방향으로 이해되는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Schmit와 Stults(1986)도 요인분석에서 역부호화된 문항을 인식하지 못하는 응답자들이 약 10%정도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부정문항과 관련된 별도의 요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그는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혼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체 척도의 절반에 해당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범주의 방향성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것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비교실험과 같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조사 이후에 분석과정에서 이러한 응답스타일의 편의문제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표준화(standardization)일 것이다. 특히 표준화 방법은 동일 측정도구를 통해 문화 또는 국가간 비교를 수행할 경우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평균, 분산, 또는 평균과 분산, 그리고 공분산을 이용한 보정법)과 대상(개인, 집단 또는 문화)에 따라 표준화 과정을 분류한 Fischer(2004)의 논의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Podsakoff 등(2003)의 제안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스타일로 인한 편의를 제거 또는 설명하기 위해 표준화를 통해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단점을 가질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통계적 보정을 할 때에는 보정되는 오차가 순수한 방법오류라는 가정에 기반하게 되는데, 만약 이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보정결과는 실제 응답자의 실제 점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적 보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오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응답스타일의 편의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성격특성의 측정과 관련된다. Paulhus 등(1995)을 비롯한 많은 연구들에서 성격특성과 관련된 측정도구 자체가 응답스타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설명변인인 응답자의 성격특성 자체가 이것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 또 다른 한계로는 모형의 설명력과 관련된다. ERS와 ARS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관련하여 성격특성 이외에도 면접상황이나 응답자의 일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나, 각 모형들의 설명력 자체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응답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일경 · 이상민 · 최보영 · Yuan Ying Jin · 이자영(2010). 「5요인 성격특성과 학업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 81-93.
- Austin, E. J., Deary, I. J., and Egan, V. (2006).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ponse scale use: Mixed Rasch modelling of responses to NEO-FFI it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235-1245.
- Bachman, J.G. and O'Malley, P.M. (1984). Yea-saying, nay-saying, and going to extremes: Black-White differences in response styles, *Public Opinion Quarterly* 48, 491 - 509
- Baumgartner, H., and Steenkamp, J. B. E. M. (2001). Response styles in marketing research : Across-national investig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8(2): 143-156.
- Berg, I.A. and Collier, J.S., 1953. Personality and group differences in extreme response se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 164-169.
- Budner, S. (1962).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30, 29-59.
- Chen, C., Lee, S.-Y., & Stevenson, H. W. (1995). Response style and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rating scales among east Asian and north American students. *Psychological Science*, 6(3), 170-175.
- Cronbach, L. J. (1946). Response sets and test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 : 475-494.
- Cronbach, L. J. (1950). Further evidence on response sets and test desig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0, 3-31.
- Eid, M., & Rauber, M. (2000). Detect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organizational survey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6, 20 - .30.
- Fischer, R. (2004). Standardization to Account for Cross-Cultural Response Bias : A Classification of Score Adjustment Procedures and Review of Research in JCCP.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263-282.
- Gerber-Braun, Beatrice (2010) : The Double Cross: Individual differences between respondents with different response sets and styles on questionnaires. *Dissertation, LMU München : Fakultät für Psychologie und Pädagogik*
- Gosling S.D., Rentfrow P.J., and Swann W.B. Jr.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 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 504 - 528

- Greenleaf, E. (1992). "Improving Rating Scale Measures by Detecting and Correcting Bias Components in Some Response Sty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9: 176-188.
- Grimm, S. D., and Church, A. T. (1999). Across-cultural study of response biases in personality measur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 415-441.
- Harzing, Anne-Wil(2006). Response styles in cross-national mail survey research: A 26-country stu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6(2): 243-266.
- Herk, H. van, Poortinga, Y.H., and Verhallen, T.M.M. (2004). Response styles in rating scales: Evidence of method bias in data from 6 EU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3), 346-360
- Hofstede, G. H.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ui, C.H., & Triandis, H. C. (1985). The instability of response sets. *Public Opinion Quarterly*, 49, 253-260.
- Jackson, D. N., and Messick, S. (1958). Content and style in personality assessment. *Psychological Bulletin*, 55: 243-252.
- Johnson, T. J., Kulesa, P., Cho, Y. I., and Shavitt, S. (2005). The relation between culture and response styles: Evidence from 19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2), 264-277.
- Lee, C., and Green, R. T. (1991).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Fishbein behavioral intentions model.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 289-305.
- Lentz, T. F.(1938). Acquiescence as a Factor in the Measurement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Bulletin*, 35 : 659.
- Lewis, N.A. and Taylor, J.A.(1955). Anxiety and extreme response preferenc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5 : 111-116.
- Marin, G., Gamba, R. J., and Marin, B. V. (1992). Extreme response style and acquiescence among hispanic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3(4), 149-174.
- Meiser, T., & Machunsky, M. (2008). The personal structure of personal need for structure: A mixture-distribution Rasch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4, 27-34.
- Messick, S. (1968). Response sets. In 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pp. 492-496). New York : Macmillan.
- Messick, S. (1991). Psychology and methodology of response styles. In R. E. Snow&D.

- E.Wiley (Eds.), *Improving inquiry in social science: A volume in honor of Lee J. Cronbach* (pp. 161-20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Naemi, B.D., D.J. Beal, and S.C. Payne. 2009. "Personality Predictors of Extreme Response Style." *Journal of Personality* 77(1): 261 - 86.
- Paulhus, D. L. (1991). Measurement and control of response bias. In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Podsakoff, P.M., MacKenzie, S.B., Lee, J.Y., & Podsakoff, N.P.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 Ross, C.K., Steward, C.A., and Sinacore, J.M. (1995). A comparative study of seven measures of patient satisfaction. *Medical Care*, 33: 392-406
- Smith, P. B. (2004). Acquiescent response bias as an aspect of cultural communication styl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50-61.
- Smith, P.B., and Fischer, R. (2008). Acquiescence, extreme response bias and levels of cross-cultural analysis. In F.J.R. van de Vijver, D.A. van Hemert & Y. Poortinga (Eds.) *Individuals and Cultures in Multi-level Analysis*, pp. 283-31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enkamp, J. B. E. M., and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 78-90.
- Stening, B.W., and Everett, J. E. (1984). Response styles in a cross-cultural managerial stud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2, 151-156.
- Van de Vijver, F. J. R., & Leung, K. (1997). Methods and data analysis for cross-cultural research. In J. W. Berry, Y. H. Poortinga, & J. Pandey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Vol. 1., pp. 257-300). Boston: Allyn and Bacon.
- Van Hemert, D. A., Van de Vijver, F. J. R., Poortinga, Y. H., & Georgas, J. (2002). Structure and score levels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across individuals and countr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229-1249.
- Watkins, D., & Cheung, S. (1995). Culture, gender, and response bias: An analysis of responses to the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5), 490-504.